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해양 호재 만발,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Barossa, Llog FPS, TransOcean+Ocean Rig

코멘터리

선종별 선가 상승세 지속.....

① 지수는 제자리였지만 케이프와 파나막스 벌크가 상승했고, MR도 $36m로 올랐습니다.
②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Eni의 Coral FLNG Hull의 스틸커팅을 막 마쳤고, Topside는 11월 제작을 시작합니다. FLNG의 수익성은 수려하다는 사측의 가이던스입니다.

시추 시장은 바닥을 지납니다..

③ 지난주 초의 뉴스이지만, Transocean이 13기 선대의 Ocean Rig(26억$)을 인수합병해 57기의 선대로 재탄생합니다. 올해 1월 Songa Offshore(12억$) 인수 후 2번째입니다. 이로써 라이벌 Ensco의 선대가치 58억$를 크게 웃도는 80억$의 초대형 Rig 선사가 탄생합니다. 이에 대한 Wood Mackenzie 등의 평가는 Rig 시황이 바닥을 지났다 등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④ IHS Markit은 2020년까지 드릴링 Rig 시장 수요는 +27%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Semisub는 북해와 중동이, 드릴쉽은 아메리카 대륙이 성장을 주도합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해양 수주를 기대하게끔..

⑤ 현대중공업이 단독 협상 중인 Llog의 킹스랜딩 FPS에 대해, 발주처는 Delta house design에 올해 말 FID 일정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이어온 해양 수주 공백을 깰 수 있습니다. 주가에는 큰 모멘텀이 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더 많은 수주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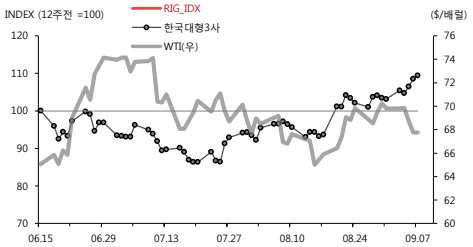
⑥ 삼성중공업+Technip이 FEED 경합 중인 Barossa도 2019년초 subsea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뉴스가 업데이트됩니다. 그 다음은 FPSO 발주입니다. 2019년 중 삼성중공업이 노리는 큰 프로젝트의 진척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해양/유가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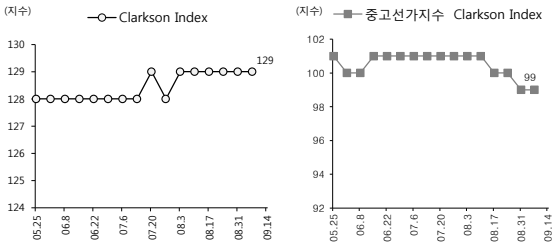
매각 및 인도 예정 드릴쉽 5기에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정적인 해양 잔고에
향후 1년간 해양 파이프라인이(인도 릴라이언스 MJ FPSO, 나이지리아 ZabaZaba, Ikike, Bonga FPSO, 호주 Eni의 Barossa FPSO)이 가장 많은 삼성중공업이 적합한 선택입니다.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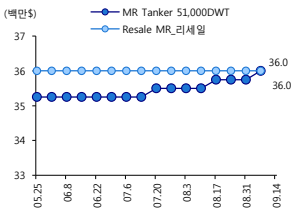
▶ 유가, RIG PLAYER, BIG3



▶ 신조선가지수 제자리이지만...



▶ MR탱커 신조선가 $36M 도달: 실제 $38M에 계약 중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선가 & 실적

▲ 삼성중공업 Coral FLNG의 Hull 스틸커팅
△ 지수 정체했지만, 선종별 상승세 지속

2개 큰 해양 & 시추 시황 바닥

▲ ConocoPhillips가 Barossa의 subsea 2019년초 선정 계획 밝혀: FPSO도 후속으로
▲ Llog, standalone FPS 적용 확인: FID 2018년말
▲ Transocean의 Oceanrig 흡수합병: 드릴링 시장 바닥을 지난다
▲ IHS Markit 2020년까지 시추선 수요 증가 전망: 드릴쉽 수요는 미국시장 주도로 27% 성장

수주

▲ Posco,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0척을 10년간 LNG-Fuel로 전환 계획 밝힘
▲ 삼성중공업, 말련 AET 셔틀탱커 1척 추가 수주: M/S 44%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지수 정체했지만, 선종별 상승세 지속

- 또 신조선가지수는 제자리였지만, 선종별로 상승세 지속: 케이프와 파나막스 벌크선이 올랐고 MR탱커가 $36m을 찍음
- 파나막스 벌크선이 $19m에서 $23m으로 크게 올랐고 수에즈막스 탱커도 $0.5m오른 $44.5m을 기록했지만, 중고선가 지수도 99p 제자리

▲ 삼성중공업 Coral FLNG의 Hull 스틸커팅

-삼성중공업은 Eni의 Coral FLNG의 Hull을 스틸커팅: 탑사이드 제작은 11월달에 시작, Keppel Offshore & Marine의 turret mooring은 이미 3월에 작업 시작
-FLNG 제작은 2021년말에 마치고, Eni의 Area 4 생산개시는 2022년에 시작할 예정
-FLNG는 439m x 65m의 2.1만톤 구조물이며, 3MTPA의 가스와 480천b/d의 컨덴세이트를 생산 가능
-ENI가 25%, ExxonMobil 25%, 중국 CNPC 20%, Empresa Nacional de Hidrocarbonetos 10%, Kogas 10%, Galp Energia 10% 보유

(07월4주) △ 삼성중공업의 Coral FLNG 제작 시작: BP 가스 장기공급계약 완료

- 9월 Coral FLNG Hull의 스틸커팅과 함께 제작 시작: Topside는 11월부터
- 작년 6월부터 60개월의 공기롤 사업이 진행 중: 2022년 가동
- Eni Coral FLNG의 3MTPA 천연가스는 이미 BP가 모두 인수하기로 20년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

(17년6월)▲ 드디어 삼성중공업 Coral FLNG 수주

HI 중공업 Flash - 18년 09월 2주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 시추

▲ ConocoPhillips가 Barossa의 subsea 2019년초 선정 계획 밝혀: FPSO도 후속으로

-ConocoPhillips의 Barossa gas field 개발 프로젝트에서 subsea productin system 공급처를 2019년초에 선정하겠다고 밝힘
-이외에 3가지 프로젝트인 2) FPSO, 3) subsea umbilicals flowlines & risers와 4) subsea export pipeline도 진행 형
-phase 1은 6개 유정에서 생산을 시작해, 8년 후 4개 유정이 추가되며 phase 2에 진입 예정
-FPSO는 800mcfd(6.4MTPA)의 가스와 6천b/d의 컨덴세이트 생산용량
-FID는 2019년말
-JV는 ConocoPhillips 37.5%, SK E&S 37.5%, Santos 25%의 파트너로 구성

(06월4주) △ Barossa FEED 2사 선정: TechnipFM+SHI의 신조 vs. Modec의 Lease 경합

-미국 ConocoPhillips는 FEED 병렬 수행할 2사를 모두 선정: 영구 Mooring + 4만톤 탑사이드 예상
-Barossa는 호주에서 2013년 standalone으로 진행되는 첫 프로젝트
-FID는 2019년말 예정
>> FEED 종료 후 최종 선택이 남아있어, 삼성중공업의 2019년 기대 수주POOL로 볼 수 있습니다.

(04월5주) △ Barossa FEED Shortlist 두곳에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확정 & Lease 중 Modec 유력
(01월5주) ▷ ConocoPhillips의 Barossa FEED 2사 곧 선정
(17년09월) △ ConocoPhillips, 북호주 Caldita-Barossa FEED 2사 선정 한창
(17년07월) △ Caldita-Barossa FEED 입찰 7월 → 2018년초 선정
(16년03월) △ 호주의 대형 가스 프로젝트들 현황

▲ Llog, standalone FPS 적용 확인: FID 2018년말

-미국 독립 E&P사 Llog는 Khaleesi & Mormont discovery에 Delta house design의 FPS 적용을 공식 확인
-잠정 FID는 올해말이며, 100천b/d의 FPS는 현대중공업이 Hull과 Topside를 담당하게 됨
-Delta house의 검증된 Opti-E design 새 버젼을 사용할 계획이며, 필드를 공동 개발도 검토 중

(04월5주 ▲ 킹스랜딩에, 현대중공업 느닷 수주 모멘텀 부각

- 미국의 독립 E&P Llog는 King's Landi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 과거 Delta House 프로젝트에서 Hull을 현대중공업, 탑사이드를 Kiewit Offshore Service에 맡겼었는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Hull+Topside 제작을 추진
- King's Landing 구조물은, Delta House의 semi-submersible의 복제구조물이 될 것으로 전해짐: Exmar의 Opti 11,000 design으로 10,500톤 데크 무게
- 또한 해외 제작사로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전히 subsea scheme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함
- 한 관계자는, 이미 현대중공업 수주가 확정되어서, Llog의 고위층이 이미 울산을 방문했다고 설명
- subsea가 아닌 semisubs로 진행될 경우 현대중공업은 30개월 만에 제작해 인도해야 함
- 같은 설계의 Delta house는 80천b/d 생산용량에, 작년에 97천b/d+200mcfd의 피크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전함
- King's Landing을 Delta House2 프로젝트로 호칭할 수도 있으며, 또한 3호선 옵션도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함

▲ Transocean의 Oceanrig 흡수합병: 드릴링 시장 바닥을 지난다

- TranOcean은 27억$에 Ocean Rig 인수를 결정: 합병으로 Ocean Rig 주주는 합병회사 지분의 21%를 가지게 됨, 합병은 1Q19에 마무리
-올해 1월 Songa Offshore를 12억$에 인수 후, 올해 두번째 대규모 합병
-Vessel Value는 Ocean Rig의 선대를 26억$에 평가: 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은 43억$로 평가
- 이로써 TransOcean의 선대 가치는 기존 54.1억$에서 80억$에 달하게 됨: 라이벌 Ensco는 58억$로 평가
-Ocean Rig은 7기의 고사양 UDW 드릴쉽, 2기의 Harsh-environment semi-submersible Rig, 2기의 드릴쉽 잔고(SHI) 보유
-Ocean Rig의 13기를 더해 기존 TransOcean의 선복 46기에 스크랩 예정 2기(Songa Offshore의 노후 3기 중 2기)으로 57기에 달함
-Wood Mackenzie는 "Winning Deal"로 평가: Ultra-Deepwater drillship 시장은 바닥을 짚었기 때문

▲ IHS Markit 2020년까지 시추선 수요 증가 전망: 드릴쉽 수요는 미국시장 주도로 27% 성장

-낮은 비용과 유가 상승으로 2020년까지 RIG 수요가 현재 453기에서 521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잭업릭 등은 13% 수요 성장
-Semi-submersible Rig은 71기에서 81기로 +25% 성장: 중동과 Aramco의 offshore 증산이 주도, 북서 유럽이 수요의 1/3 차지
-드릴쉽은 62기에서 79기로 +27% 성장: Amerieca 주도
: ExxonMobil의 Guyana 드릴링 캠페인 성공과 브라질의 pre-salt 필드 개발
-2019년의 IOC 등의 예산 발표 시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Shell, 드릴쉽 조기 반납

-Shell은 GOM에서 2019년2월25일 만기로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드릴쉽 용선을 취소: Noble Cor.의 드릴쉽
-기존 Dayrate는 $487천/일였는데, 남은 계약기간인 183일까지 $420천/일을 지급
-Shell은 이 외에도 Transocean은 드릴쉽 4기를 용선해서 운영 중

▶ LNG

△ 독일 Uniper, 2척 LNG선 시장에서 용선 추진

-독일 Uniper Global Commodities는 최대 2척의 LNG선을 운영하기 위해 선주들과 접촉 중
-9월25일까지 확정 1척 + 옵션 1척, 5년~7년 용선으로 LNG선 용선 제안을 받을 예정
-이번 사업건은, 투기발주된 LNG선이 용선처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미국 Freeport로부터 0.8MTPA를 20년간 수입하는 Uniper는, 이미 8월 MOL 용선 LNG선(DSME 건조)의 20년 장기 운영을 시작하면서, 1척을 추가로 구하겠다고 지난달 밝힌바 있
>> 신조 발주건은 아니지만, 여태 투기발주된 선박을 흡수하는 용선 계약건입니다. 긍정적입니다.

△ Hoegh의 FSRU 9호선 용선 성공, 10호선 중국으로부터 건조자금 대출 성공

-Hoegh는 스페인 Naturgy Energy Group과 FSRU#9의 용선 계약을 체결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12월에 인도되면, 15개월간 이전의 Gas Natural Fenosa가 운용
-FSRU는 LNG선으로서 활동하며, 운임은 현재 DFDE 엔진의 LNG선의 중기 운임 안팎을 받게 됨
-또한 Hoegh는 FSRU 10호선(삼성중공업 건조, 2Q19 인도)에 대해 China Construction Bank로부터 $206m의 Sale & Leaseback 계약을 따냄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 IMO 2020

▲ Posco,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0척을 10년간 LNG-Fuel로 전환 계획 밝힘

-호주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하기 위한 20여척의 벌크선을 수년간에 걸쳐 Dual-Fuel로 전환 예정
-Posco는 필요 선박을 10개 미만의 선사들에게 맡김: H-Line, Asan Merchant Marine, 대한해운, 팬오션, 폴라리스의 한국 선사와 일본의 K Line, MOL 등
-1년에 2척 정도를 발주할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곧 최소 2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임
-마침 7월에 H-Line이 현대중공업과 LNG-Fuel 180k-DWT 2척을 발주했는데,
: H-Line은 2020년 Posco와의 COA가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첫번째 발주일 것으로 판단
-Posco는 54백만톤의 철광석을 40여척의 케이프 벌크선을 통해 호주와 브라질로부터 수입하는데,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모두 장기 COA를 이용

(07월5주) ▲ H-Line의, LNG-fuel 케이프 벌크선 2척, 현대중공업과 계약 마무리 단계

- 2주 전 뉴스의 업데이트: MOU를 체결했고, 9월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관측

(07월3주)▲ H-Line(포스코 용선), 현대중공업에 LNG 추진 벌크선 발주 검토

- H-Line은 현대중공업과 LNG-fuelled 케이프 벌크선 발주를 고려 중: 포스코 용선 기반
- 180k-DWT 2척, 2020년 하반기 인도
- 신조선가는 기존 스팀터빈보다 20%~25% 높을 것으로 전함: 케이프 벌크선 신조선가는 $48m인데, LNG추진선은 $60m에 달할 것으로 판단됨

△ SCF의 첫 LNG-Fuel선 arctic-transit

-현대중공업에 6척의 LNG-Fuel 아프라막스 탱커를 발주한 SCF는 이중 1호선과 6호선을 Shell에 용선했고, 1호선은 기 인도
-2호선(Green Funnel"이 10월1일 인도 예정이며, SCF가 직접 운영하는 첫 LNG-Fuel선이 됨
-114k-DWT 탱커는 1,700-cbm LNG 탱커를 장착해, LNG 주입 후 21일간 운항 가능
-1호선은 7월에 인도되어, 9월 중순 유럽에 도착하지만, 이 운항에서는 벙커C유를 사용한 것으로 전함
-SCF가 직접 운영하는 2호선은 10월, 3~6호선은 2019년 인도되고, 2호선은 11월부터 북서유럽을 향해 NSR(Northern Sea Route)를 LNG로 첫 운항하게 됨

△ MAN, ro-pax를 Dual-fuel로 개조

-독일 MAN PrimeServ는 2척의 ro-pax 페리를 DF 엔진으로 개좌는 프로젝트를 따냄
-MAN 9L48/60A 메인엔진을 장착할 예정
-회사는 LNG를 적용할 경우 CO2 배출이 30%, NOx를 85%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

▽ 중국의 LNG-Fuel 23,000-teu 근황: DNV GL과 대련조선 공동 개발 합의

-DNV GL 선급과 중국 DSIC는 23,00o-teu 컨테이너선 Joint development project를 시작
-대련조선은 중국 Cosco Shipping 그룹에 올해 20,000-teu 컨테이너선 인도를 마침
-현재 소위 ULCV(Ultra-max Container Vessel)은 CMA-CGM, MSC가 발주한 20척이 잔고에 있음: CMA-CGM의 LNG-Fuel이 9척
-조선사는 한국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중국의 대련조선, 후동중화, 장난 창싱

HI 중공업 Flash - 18년 09월 2주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Unknown→Hyundai HI (Ulsan), TK(158k) 1척

ⓑUnknown→Hyundai Vinashin, PTK(46k) 3척

ⓒUnknown→Hyundai Mipo, LPG(38k) 2척

- 알려지지 않은 수주건

ⓓAET Tankers→Samsung HI, TK(153k) 1척

- 삼성중공업은 말레이시아 AET로부터 152,700-DWT 탱커 1척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해 줌
- 신조선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선 계약보다 신조선가도 살짝 오른 것으로 전함
: 지난달말 AET는 Shell과의 용선을 바탕으로 DP2 152,700-DWT 셔틀탱커 1척을 발주한 바 있음
- 삼성중공업은 1995년 첫 셔틀탱커 제작 이후 133척의 셔틀탱커 중 59척을 수주해 M/S 44%로 셔틀탱커 시장을 지배 중
(08월3주) ▲ AET, Shell 용선으로 셔틀탱커 2척 추가 발주 계획
- 말레이시아 MISC의 탱커 선사 AET는 Shell의Brazil Shipping Limited와 152,700-DWT DP2 셔틀탱커 공급계약을 체결: Tier 3, BWTS 장착
-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 조선사와 2020년 4분기 인도로 계약 체결 예정
(06월1주) ▲ (공시)삼성중공업, AET로부터 셔틀탱커 4척 수주 & AET는 $575m 자금조달 성공
- 셔틀탱커 4척, 척당 신조선가는 $90.7m으로 고부가가치 선종
- $575m 규모의 RCF(Revolving credit facility)를 확보
- 작년말의 Standart Chartered에 이어, BNP Paribas, DBS Bank, ING Bank, OCBC Bank, Societe Generale and Sumitomo Mitsui Banking Corp.이 참여
- 이를 통해 AET는 fuel-efficient 선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금융권은 판단
(05월4주) △ 말레이시아 AET, Duel-Fuel 선대 확대 계획 시사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삼성중공업, AET의 셔틀탱커 수주 공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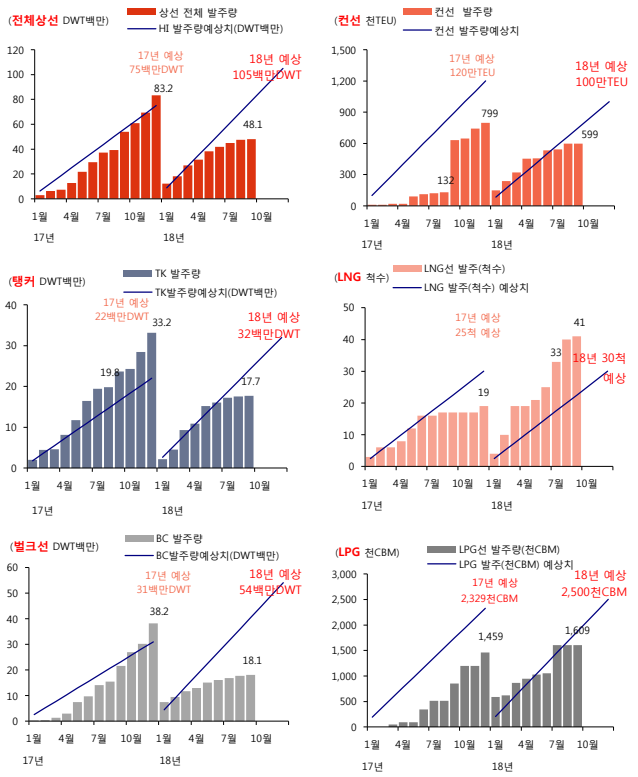
- 위의 Clarksons 수주 참조

▲ Posco,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0척을 10년간 LNG-Fuel로 전환 계획 밝힘

- 위의 IMO 2020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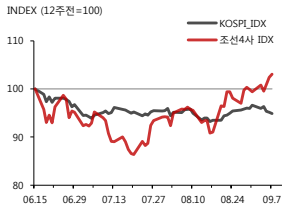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8년09월1주								
민영	Nantong COSCO KHI	18.2.1	중국	Winning Intl	BULK	210k DWT	2020	2
	Tsuneishi Zhoushan	18.4.1	Unknown	Unknown	CONT	3k TEU	2019~2020	5
	Dalian COSCO KHI	18.4.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61k DWT	2020	1
일본	Miura Zosensho	18.4.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k DWT	2019	1
						2k DWT	2019	1
				First Marine	BULK	9k DWT	2019	1
	JMU Tsu Shipyard	18.4.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183k DWT	2020	1
	JMU Isogo Works	18.8.24	아시아	Wan Hai Lines	CONT	3k TEU	2020	8
	JMU Maizuru Shipyar	18.4.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1k DWT	2019	3
	Imabari SB Saijo	18.6.1	유럽	Navios Holdings	TK	310k DWT	2020	2
	Imabari SB Hiroshima	18.4.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1k DWT	2019	2
	Sasebo HI	18.4.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2k DWT	2020	2
18년09월2주								
BIG6	Hyundai Mipo	18.3.16	Unknown	Unknown	LPG	38k cu.m.	2019~2020	2
	Hyundai Vinashin	18.5.11	Unknown	Unknown	PTK	46k DWT	2020	3
	Samsung HI	18.9.3	아시아	AET Tankers	TK	153k DWT	2020	1
	Hyundai HI (Ulsan)	18.7.1	Unknown	Unknown	TK	158k DWT	2019	1
중국	Bohai Shipbld.	18.8.29	중국	Desail	RORO		2020	1
	Jiangnan SY Group	18.9.5	유럽	Gasfin Development U	FSRU	28k cum	2019	1
	Tianjin Xingang HI	18.8.21	중국	CSIC Leasing	BULK	82k DWT	2020	2
중국	Dalian COSCO KHI	18.9.6	유럽	Akmar Shpg & Trdg	BULK	61k DWT	2020	1
	Haitong Offshore Eng	18.2.1	중국	Unknown Chinese	BULK	53k DWT	2020	1
	Wuchang SB Group	18.5.1	중국	CQ Waterway Engng	OFF-SUPP	3k GT	2020	1
	CSC Jiangdong	18.8.31	중국	Wuhan Newport Daton	CONT	1k TEU	2020	2
	Nantong Xiangyu	18.8.3	일본	Doun Kisen	BULK	82k DWT	2020	2
일본	Miura Zosensho	18.1.1	Unknown	Shinpo Kaiun	BULK	2k DWT	2018	1
	Mitsui SB (Tamano)	18.9.6	Unknown	Unknown	BULK	87k DWT	2020~20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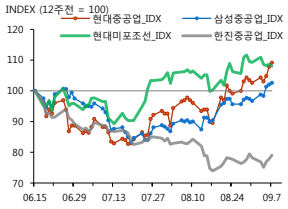
HI 중공업 Flash - 18년 09월 2주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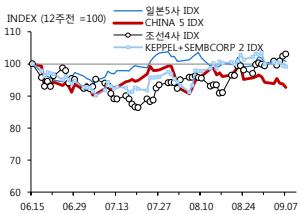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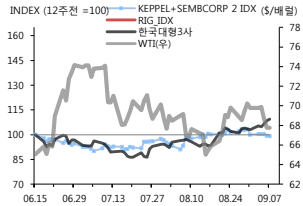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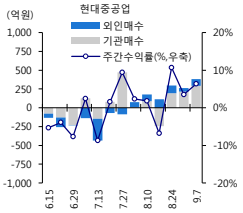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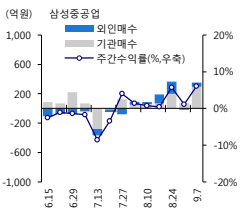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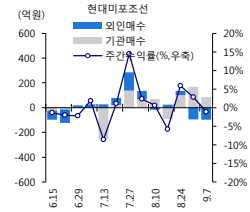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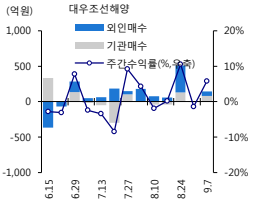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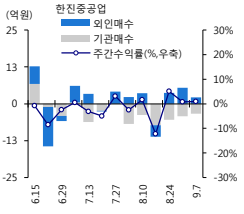
▶조선6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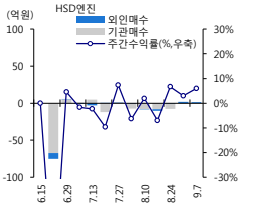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기름값 오른다"...조선업계 '친환경 연료절감'이 최대 화두

https://bit.ly/2Niac7w

삼성중공업의 ESD는 바닷물과 공기의 흐름제어를 통해 선박연료를 절감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운항비용을 줄여주는 친환경고효율기술
올해 4월 글로벌컨테이너선사인 MSC는 2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공기윤활장치인 세이버 에어를 최초 적용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운항 중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재액화해 다시 화물창에 집어넣음으로써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완전재액화시스템을 LNG선에 적용, 최근 세계 처음으로 선주사에 인도
올 들어 대우조선이 수주한 12척의 LNG선에는 모두 완전재액화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으로 선주는 연간 약80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대중공업은 최근 LNG선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사용할 수 있는 완전재액화 기술실증에 성공
시험은 증발가스가 액화되는 영하163도로 설비내부를 냉각시키는 등 실제 LNG선 운전상황을 구현·진행, 혼합냉매 완전재액화 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

▶ 현대중공업 보도

▷현대重, 독자개발 '힘센엔진' 여객선 첫 탑재

https://bit.ly/2wL0ro9

현대중공업은 독자 개발한 선박추진용 엔진 2기 '힘센엔진(H46/60V)'을 최근 현대미포조선이 한중 합작선사인 위동항운으로부터 수주해 건조한 3만3000톤 화물겸용 여객선(RO-PAX)에 탑재했다고 6일 밝힘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힘센엔진은 1만6000 마력급으로 4행정(4-Stroke) 중형 디젤엔진 가운데 최대 출력을 내는 제품
힘센엔진에는 최적 연료분사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기능과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고 설명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여객선 추진엔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기존 모델보다 출력을 개선한 이중연료엔진 신모델을 개발 중

▶ 삼성중공업 보도

▷선박 연료절감 극대화 삼성重, ESD 본격 적용

https://bit.ly/2LX5GqB

삼성중공업이 맞춤형 친환경 고효율 기술인 '삼성 ESD(에너지 절감장치) 패키지'를 실선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연료절감 및 친환경 트렌드 주도에 적극 나섬
ESD는 바닷물과 공기의 흐름 제어를 통해 선박의 연료를 절감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운항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
ESD 패키지는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장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조합을 제공, 최대 8%의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 가능

▶ 대우조선해양 보도

N/A

▶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한진중공업, 937억원 규모 해병부대 설계시공 수주

https://bit.ly/2LZKy2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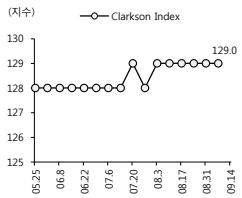
한진중공업은 국군재정관리단과 부대 설계시공 일괄입찰 관련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
계약 금액은 937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3.82% 규모

HI 중공업 Flash - 18년 09월 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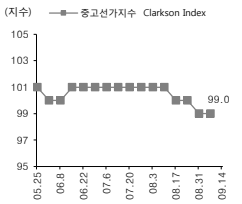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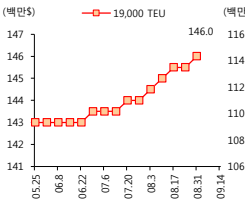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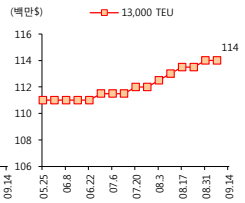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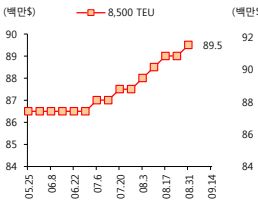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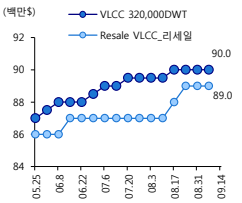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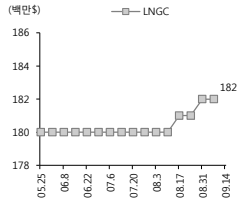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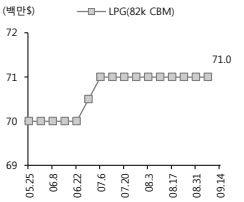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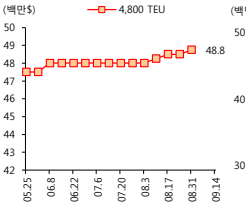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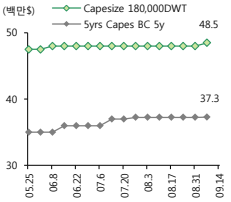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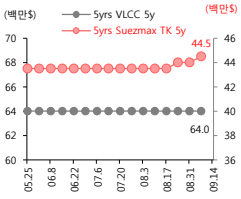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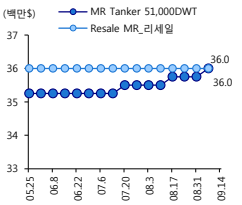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VLCC, 수에즈막스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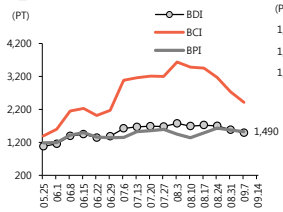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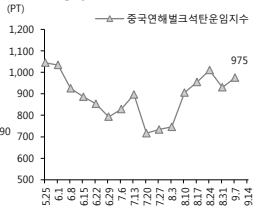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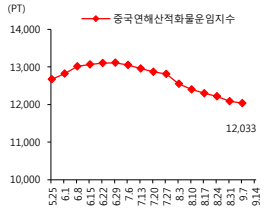
운임지수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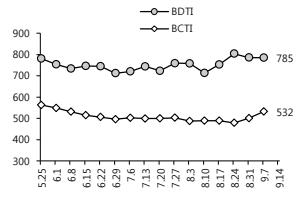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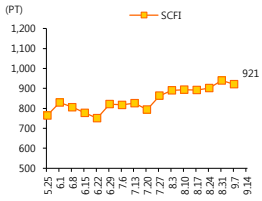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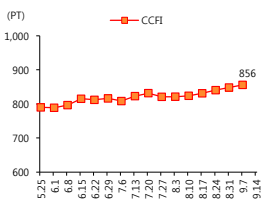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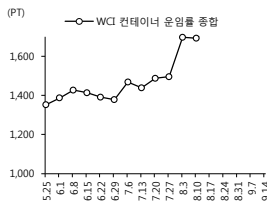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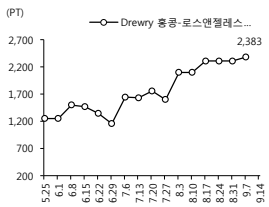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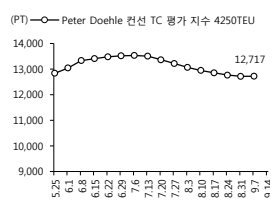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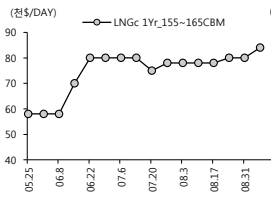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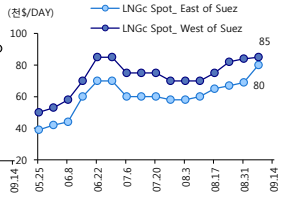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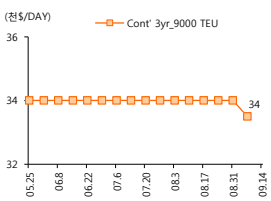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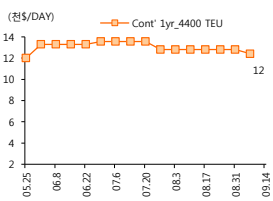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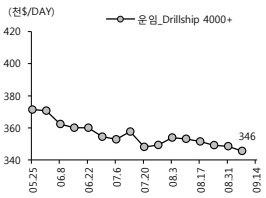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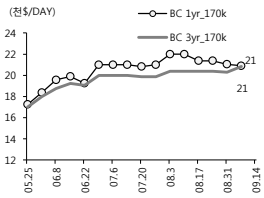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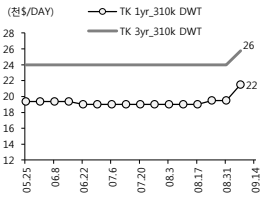
▶드릴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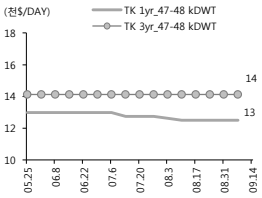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탱커 - VLCC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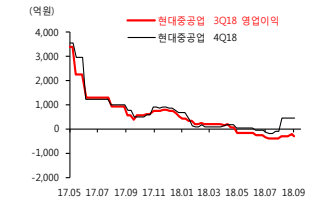


HI 중공업 Flash - 18년 09월 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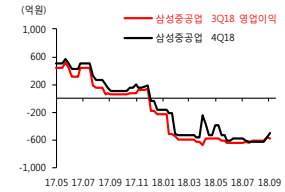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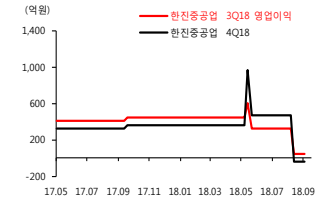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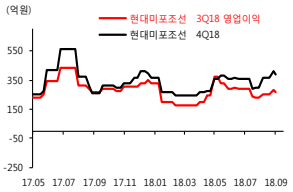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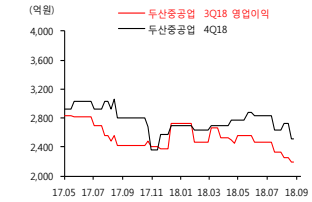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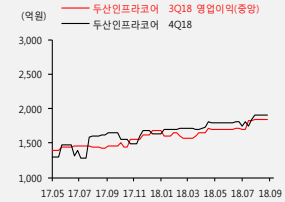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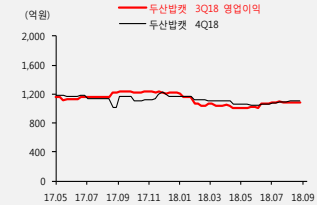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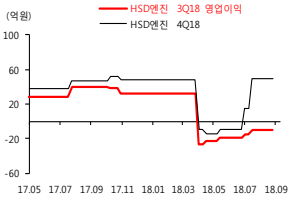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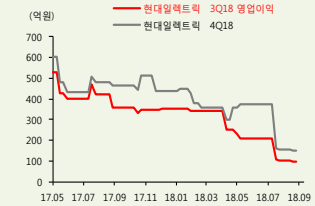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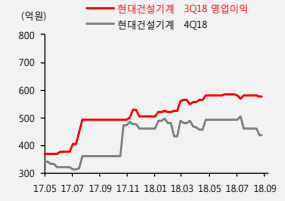
▶HSD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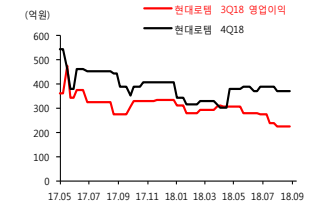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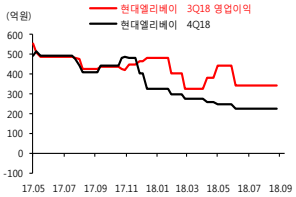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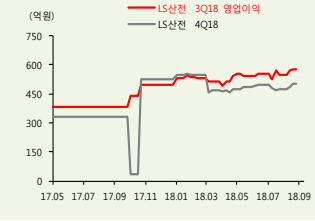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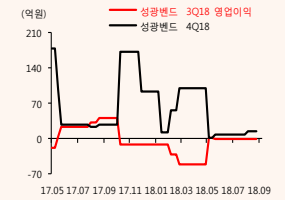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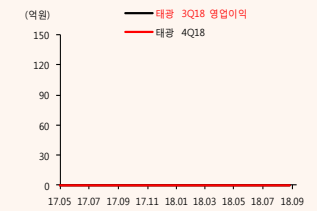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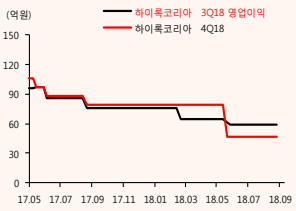
▶성광벤드



▶태광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2018 EPS(원)									Chang(%)		VALUATION	
그룹	종목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8.11	18.08.18	18.08.25	18.09.01	18.09.07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종가
조선	현대중공업	-1,365	-1,940	-3,143	-3,082	-3,855	-4,025	-4,025	-3,996	-4,200	적지	적지	-29.9	125,500
	삼성중공업	-483	-342	-367	-369	-446	-446	-446	-451	-452	적지	적지	-16.6	7,510
	현대미포조선	2,416	2,416	7,080	7,667	6,538	6,380	6,380	6,525	6,450	-16%	-1%	15.0	96,700
	한진중공업	-509	-223	-224	-424	-132	-551	-551	-551	-551	적지	적지	-4.8	2,640
두산	두산중공업	1,227	943	788	708	476	444	444	425	425	-40%	-11%	34.7	14,750
	두산인프라코어	1,249	1,430	1,500	1,473	1,560	1,566	1,566	1,566	1,566	6%	0%	6.0	9,370
기계	HSD엔진	-122	-165	-120	-236	-218	-218	-340	-340	-340	적지	적지	-11.8	4,005
	현대건설기계	15,128	14,264	13,930	13,645	12,658	12,658	12,658	12,587	12,587	-8%	-1%	9.0	113,000
	현대일렉트릭	7,642	6,295	3,111	2,484	1,327	1,327	1,327	1,157	1,157	-53%	-13%	53.7	62,100
	LS산전	4,537	4,583	4,972	4,997	5,133	5,229	5,178	5,253	5,253	5%	2%	14.7	77,000
	현대엘리베이	3,839	3,073	2,541	1,915	1,915	1,915	1,915	1,915	1,915	0%	0%	53.8	103,000
	현대로템	757	610	490	389	309	309	309	309	309	-21%	0%	95.5	29,500
방산	한국항공우주	1,304	1,208	1,305	1,359	1,371	1,239	1,254	1,208	1,185	-13%	-14%	36.6	43,4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12	891	636	615	495	663	690	664	679	10%	37%	39.6	26,900
	LIG넥스원	2,466	2,168	2,223	2,180	2,289	1,720	1,720	1,208	1,208	-45%	-47%	28.4	34,300
피팅	성광벤드	-38	-75	-55	-55	-46	-73	-73	-140	-140	적지	적지	-81.2	11,350
	태광	302	302	302	302	325	325	325	325	325	7%	0%	38.1	12,350
	하이록코리아	1,413	1,504	1,297	1,297	1,186	1,186	1,186	1,102	1,102	-15%	-7%	20.4	22,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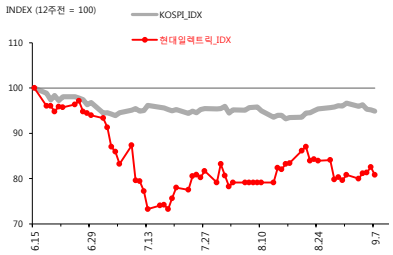
		2018 BPS(원)									ROE		VALUATION
그룹	종목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8.11	18.08.18	18.08.25	18.09.01	18.09.07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195,472	172,864	170,189	170,033	173,216	174,172	174,172	174,083	174,082	-2%	0%	0.7
	삼성중공업	19,814	12,278	12,291	12,439	12,234	12,234	12,234	12,377	12,374	-4%	0%	0.6
	현대미포조선	126,280	117,204	118,347	118,568	116,627	116,459	116,459	116,331	116,331	6%	4%	0.8
	한진중공업	6,105	6,105	5,593	5,338	5,338	4,514	4,514	4,514	4,514	-12%	-38%	0.6
두산	두산중공업	28,884	30,157	30,545	28,297	28,242	28,596	28,596	28,596	28,596	1%	5%	0.5
	두산인프라코어	10,851	10,061	9,877	9,654	9,635	9,703	9,703	9,703	9,703	16%	16%	1.0
기계	HSD엔진	7,612	7,609	7,593	12,043	11,040	11,040	6,177	6,177	6,177	-6%	-8%	0.6
	현대건설기계	131,002	134,289	139,230	135,935	132,950	132,950	132,950	132,950	132,950	9%	10%	0.8
	현대일렉트릭	106,687	110,027	107,159	105,168	105,268	105,268	105,268	104,837	104,837	1%	4%	0.6
	LS산전	42,734	42,687	42,823	42,866	42,969	43,062	43,004	43,026	43,026	12%	13%	0.0
	현대엘리베이	36,464	33,177	31,998	41,903	41,903	41,903	41,903	41,903	41,903	5%	6%	2.5
	현대로템	16,526	16,470	16,336	16,136	16,065	16,065	16,065	16,051	16,051	2%	6%	1.8
방산	한국항공우주	12,988	12,835	12,439	11,963	11,856	11,660	11,660	11,675	11,585	10%	13%	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2,105	42,135	41,271	41,418	41,012	41,255	41,255	41,139	41,139	2%	3%	0.7
	LIG넥스원	29,179	28,710	29,139	28,904	28,780	27,573	27,573	27,573	27,573	4%	9%	1.2
피팅	성광벤드	15,972	15,972	15,988	15,988	15,988	15,934	15,934	15,838	15,838	-1%	1%	0.7
	태광	17,110	17,110	17,110	17,110	16,473	16,473	16,473	16,473	16,473	2%	2%	0.7
	하이록코리아	24,832	24,832	25,079	25,079	24,896	24,896	24,896	24,755	24,755	4%	6%	0.9

출처: Dataguid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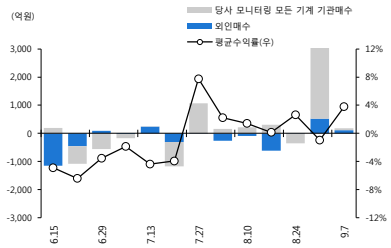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중전기

▷미 상무부,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에 또 61% 관세 잠정 부과

https://bit.ly/2PIRCD9

6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5차 연례재심을 진행하며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60.81%의 관세를 잠정 부과
이는 2017년 3월 3차 재심과 2018년 3월 4차 재심 때 부과한 관세와 동일한 수준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으로 오는 2019년 3월 최종판정

큰 기계들

▷두산중공업·SK E&S, 70MWh 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 준공

https://bit.ly/2wMCBte

두산중공업과 SK E&S는 5일 경상남도 창원시 두산중공업 공장 내 구축한 전력 수요관리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준공식을 개최
두산중공업은 ESS 공급 역할을, SK E&S는 투자와 운영을 맡음
두산중공업은 자체 보유한 ESS 제어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해 70MWh 규모의 ESS를 설치
또한 SK E&S와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와 태양광 발전 등을 구축해
공장 단위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를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증 사업도 추진 할 예정

▷정부-쉰들러, ISD 첫 사전협상…결렬시 현대엘 손배액 1조원대로

https://bit.ly/2MSdAqn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스위스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와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앞두고 5일 서울에서 첫 사전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
지난 7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때문에 "3000억원가량 손실을 봤다"며 ISD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두 달 만
쉰들러 측은 이날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ISD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
만약 이날 협상이 결렬돼 쉰들러 측이 ISD를 제기하면 최종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해짐

작은 기계들

▷씨에스윈드 영국, 270억원 윈드타워 공급계약

https://bit.ly/2QbpTw3

씨에스윈드는 종속회사 '씨에스윈드 영국'이 270억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7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8.66%에 해당하는 270억3305만4048 원이며 계약기간은 7일부터 오는 2019년 8월 30일까지

▷한국카본, 720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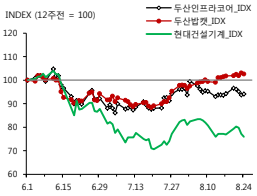
https://bit.ly/2wR4dMX

한국카본(017960)은 삼성중공업과 720억원 규모의 LNG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0.2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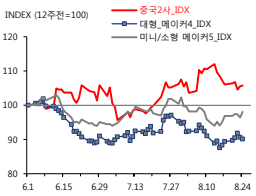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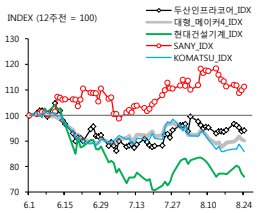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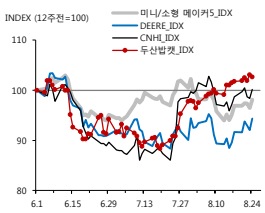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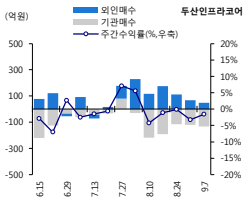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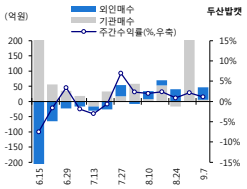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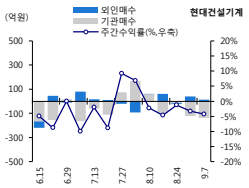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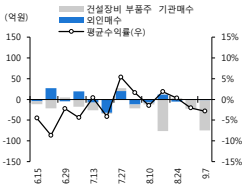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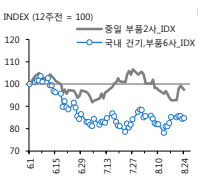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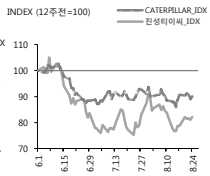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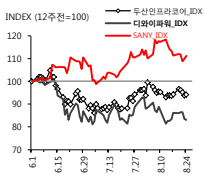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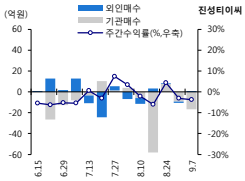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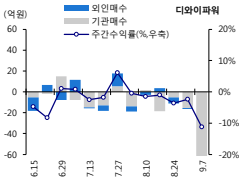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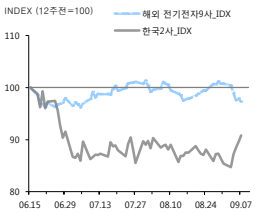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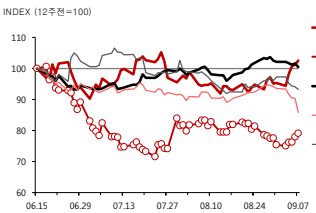
주석) 부품주4사: 진성티이씨, 디와이파워, 흥국, 동일금속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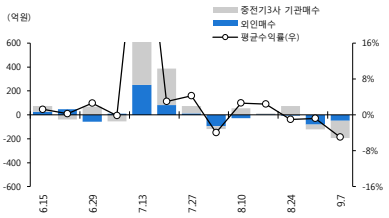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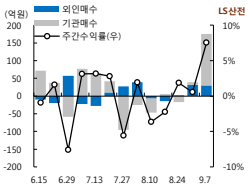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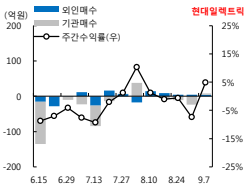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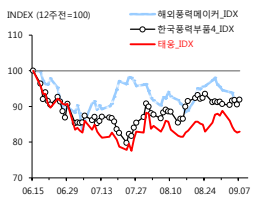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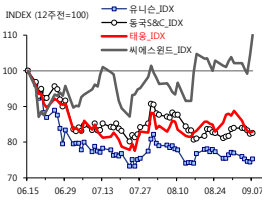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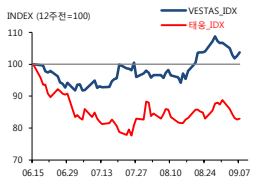
풍력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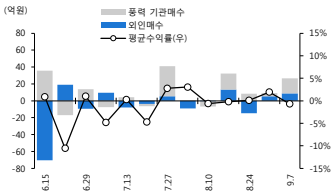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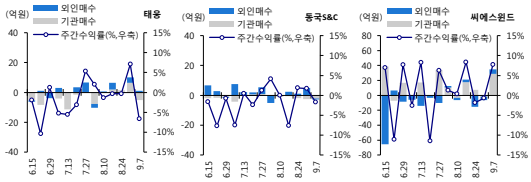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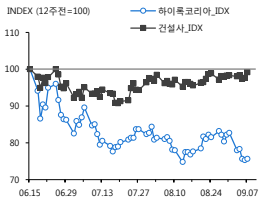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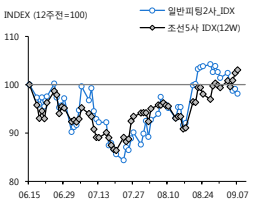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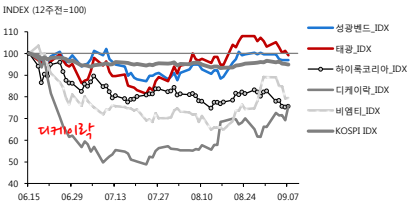
피팅

▶피팅 VS 전방1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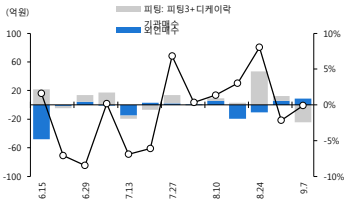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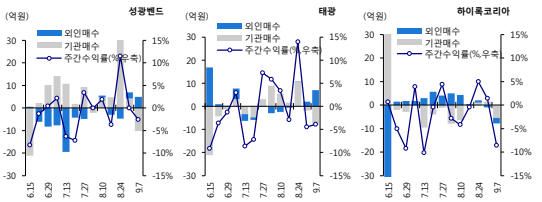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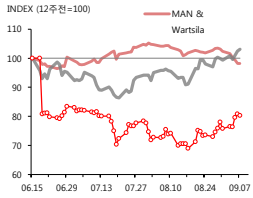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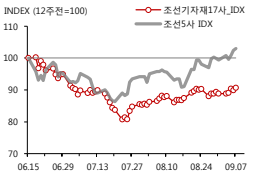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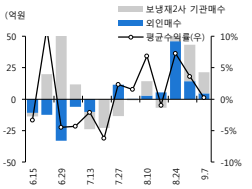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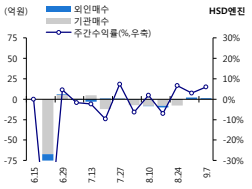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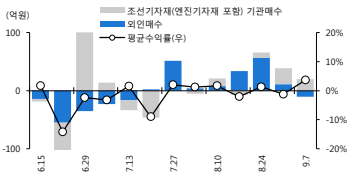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보냉재 2사



▶HSD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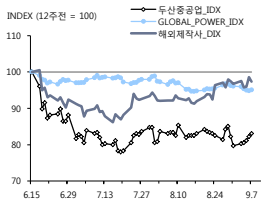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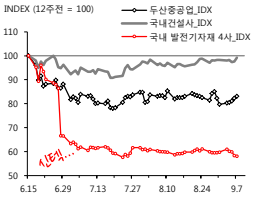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발전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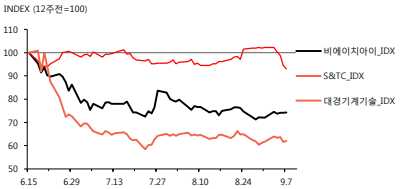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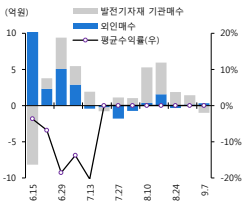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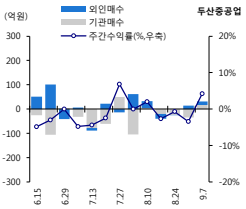


발전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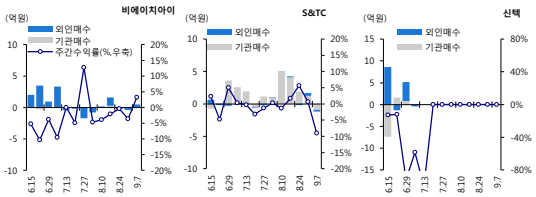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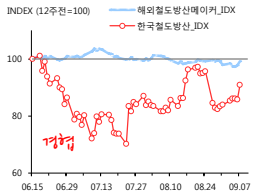


주석) 비에이치아이, S&TC,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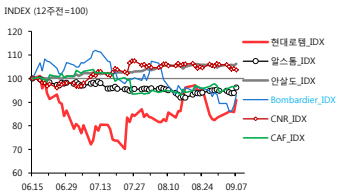


철도/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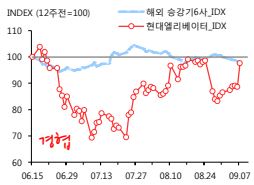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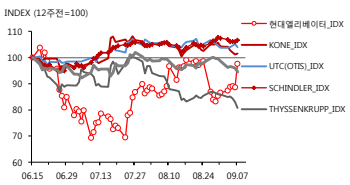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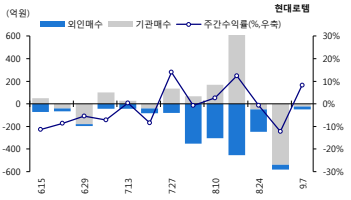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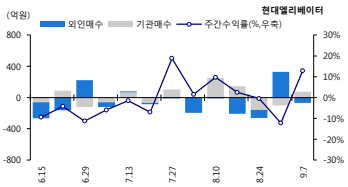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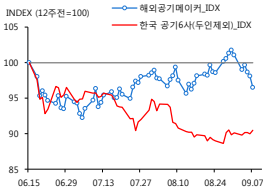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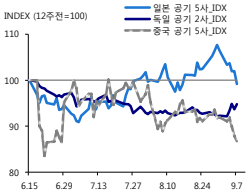


공작기계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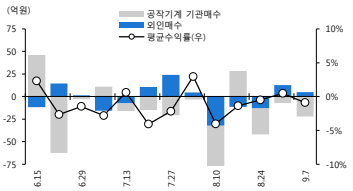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9 %	6.1 %	-